

기독교인 이혼위기 부부갈등의 회복을 위한 긍정영화치료
- 알렉스 켄드릭 목사의 <라이어프루프, 사랑의 기적>(2008) -

고선옥

I. 서론

인간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혼한 많은 부부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행복하기 보다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도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개인의 행복과 성장발달에 기반이 되는 전통적인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까닭이다. 복잡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반면, 감정의 긴장도가 적은 가정 안에서 보다 감정적, 육체적 충돌이 발생되기 쉽고 부부갈등은 밀착되어 있는 관계성으로 인하여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수 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부부들은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을 직간접적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1만 5300건으로 이는 하루 평균 316명이 이혼 하였으며 이는 2012년보다 0.9%증가한 수치다. 지난 40여 년간 이혼율은 약30%정도 감소한 데 비해 이혼율은 약600% 정도의 증가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이혼율의 최고를 말해주고 있다. 이 중 재판이혼 비율은 1993년 이후 제일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¹⁾ 재판이혼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부사이의 갈등이 나날이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혼 부부의 사유는 성격 차이 47.2%, 경제 문제 12.7%, 기타 28.9%, 가족관 불화 7.0%, 배우자 부정 7.6%, 정신적·육체적 학대 4.2%, 건강문제 0.8%로 부부의 성격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한국의 이혼율은 지난 30년간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두 번째 결혼의 실패로 인해 이혼율은 첫 번째에 비해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로 부부당사자 뿐 아니라 자녀에게 우울, 위축, 사회적 기능 저조, 건강문제, 학업 저조, 성장과정에도 행동적·정서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정서적으로는 이혼을 금기시 하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이혼천국’이라는 모순된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³⁾

한국의 가정은 현재 부부관계의 급격한 위기와 변화로부터 사회구조적인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1960·70년대 한국사회에 도처에서 일어난 산업화와 도시화는 자연스럽게 가족의 구조를 핵가족 체계로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유교사상에 근거한 가족의 가치관이 점차 사라지고 서구적인 개인주의 사고가 가족 구성원들의 주류를 이루는 가치체계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부부의 위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막10:9)라는 성경의 선포를 듣

1) 통계청 통계조사, 한국여성 가족부.
2) 통계청 사법연감.
3) 대한민국에서는 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아침에 이혼신청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오후에는 법관 앞에서 이혼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절차는 이혼의사가 진실한 것인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형식적인 것으로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고 결혼을 한 기독교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크리스천 싱글모임’, ‘싱글사랑 모임’ 등 크리스천 이혼부부들을 위한 친목모임 카페가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기독교인들의 이혼상황이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⁴⁾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자신의 신앙성숙 문제와 연결시켜 드러나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극히 꺼리는 성향으로 문제가 크게 터지고 나서 모두가 아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 선물이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을 작은 교회로 돌보고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해체를 관망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의 위기는 교회사역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교회의 기본적인 단위는 가정이고 가정의 기본적인 단위는 부부이다.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부부가 겪고 있는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해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부간의 감정을 통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한 존 가트만(John Gottman)의 연구나 예술치료로써 최근 등장한 영화치료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부부갈등을 치료하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부갈등에 있어서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감춰진 내면의 세계를 조망하며 아픈 상처를 재생하고 직면의 대화를 통해 치유하는데 효과적인 영화매체를 통한 치료는 새롭게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영화 <파이어프루프>(fireproof, 2008)를 통해 이혼위기에 있는 결혼생활을 기존의 전통적인 언어적 상담치료로는 할 수 없는 방식인 비언어적 종합적인 예술을 통해 이혼위기의 부부를 지키기 위한 40일간의 여정을 담아낸 사랑의 기적을 가트만의 긍정적 부부치료에 활용하고자 한다. 가트만 부부치료는 정서중심기법으로서 정서에 초점을 둔다. 작 팡셉(Jaak Panksepp)이 제시한 7가지 감정 체계에 기초하여 감정의 화해와 안정, 신뢰, 결속, 사랑, 친밀감, 우정과 긍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었다.⁵⁾ 또한 가트만의 ‘무엇이 결혼을 실패하게 하는가’ 보다는 ‘무엇이 결혼을 성공하게 하는가’의 방법을 통해 부부 갈등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배우자와 희망, 목표, 분노의 공유를 통해 부부관계를 회복하여 부부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사려 깊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려 한다.

영화 <파이어프루프>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인간 제도인 가정을 견고히 세워나가며 결혼을 귀히 여기고(히13:4) 무엇보다 중요한 결혼이 그리스도와 그 신부의 상징이라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부부갈등과 이혼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건강한 결혼 생활로 더 큰 사랑과 친밀감으로 화제시 파트너를 떠나지 않듯이 결혼생활에 화제를 만났을 때 잘 극복해서 영화치료가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도움이 되는 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부부갈등의 개념과 원인

부부갈등이란 ‘부부간에 상충되는 욕구와 목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하여 소통에 실패한 부정적 감정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⁶⁾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에는 어느 정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부부란 성장과정, 가정환경, 교육배경 등 생활환경과 경험이 다른 두 남녀가 성인이 되어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 가정을 이룬 것으로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임과 동시에,

4) “‘이혼천국’ 불명예, 한국교회도 예외 아니다”, 기독교한국신문, 2013.10.30일자, <http://www.c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9>

5) 한정희(2011). 가트만 부부치료 프로그램의 한국 부부집단상담 적용 및 효과검증. 복음신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논문.

6) Lynn L. Long, Mark E. Youg(2009). 『부부상담과 치료』, CENGAGE. P270.

서로가 서로에게 내외적인 노출이 가장 일반화되어 나타나는 인간관계다.

그러므로 부부란 서로의 기대와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될 때에는 신뢰하고 협조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느 집단보다 다양하고 파국에 이르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게리콜린스는 부부 문제의 원인으로 “잘못된 의사소통,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 대인관계의 긴장(섹스, 역할, 종교, 가치관, 욕구, 돈) 친구나 가족 등 외부의 압력, 상태”⁷⁾ 를 들었다.

일반적으로 부부갈등의 영역은 성격차이, 의사소통, 성생활, 부부역할, 경제적 부분, 인척 관계 등으로 나누어진다.

- ① 성격차이 - 아내가 남편에 비해 성격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부 중 한쪽이 지나치게 지배적, 폭력적, 자기중심적일 때 부부문제가 발생한다.
- ② 경제적 요인 - 수입과 소비는 가정의 기본적 욕구 충족과 생활 안정에 결정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에서 경제력 문제는 갈등의 잠재적인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 ③ 성적 요인 - 남성의 경우 성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요인에서 더 큰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④ 부부역할 - 부부간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이다.
- ⑤ 의사소통 - 의사소통요인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며, 아내가 남편에 비해 의사소통요인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⑥ 인척관계 - 시부모나 시댁 식구와 동거하는 경우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젊은 부부 사이에 부모가 갈등에 개입하여 이혼을 부추기는 결정의 주도자가 되기도 한다.⁸⁾

결혼을 한 부부는 삶의 많은 부분이 한 공간에서 공유하게 되면서 갈등에 휩싸이게 된다.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한 결혼생활은 다가오는 현실적 문제들 앞에서 서로에 대한 차이점들이 자연스럽게 발생이 된다. 기독교 가정의 부부갈등 문제 또한 일반적인 부부갈등 문제인 성격차이, 의사소통, 성적 요인, 부부역할, 경제적 요인, 인척관계 등의 갈등문제 외에 신앙수준의 차이, 정서적 가치관의 차이 외에도 교회헌금이나 봉사생활로 인한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기독교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결합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문화창조 명령에 따른 속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창1:28) 그러므로 부부갈등 문제에서 화가 나도 분이 하루를 넘기지 말고 갈등을 개방적, 수용적으로 드러내어 갈등의 상태가 증폭되고 상처가 깊어지는 일이 없도록 부부가 연합을 이루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리라”(잠 25:24)라는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볼 때 부부갈등이 일으키는 고통의 문제가 얼마라 큰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신중하여 무엇이 적절한지 파악해서, 그에 걸맞은 행동을 취하게 되면 갈등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느껴지더라도 갈등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것이 부부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다.(시112:5) 즉 성경은 부부갈등을 인생의 큰 고통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2. 부부갈등에 관한 성경적 이해

갈등(conflict)은 라틴어 컨플리케레(configerere)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는 서로(con) 충돌하다(fligerere)는

7) 게리콜린스(2008).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두란노. p244-248.

8) 심수명(2006). 『한국적 이마고 부부치료』, 도서출판 다세움. P309-310.

의미를 갖고 있다. 한자어 갈등(葛藤)은 葛(葛)과 藤(藤)덩굴이 서로 엉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⁹⁾ 즉 좀처럼 풀기 어려운 상황을 일컬어 갈등이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부부사이에서 이루어 질 때 이를 부부 갈등이라고 한다.

성경은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권면적인 상담 학자인 아담스(Adams)는 “하나님은 결혼을 모든 인간 사회의 근본 요소를 만드셨다. 교회, 학교, 직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고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신 후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에 대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¹⁰⁾결혼이라는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연합을 통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가 되는 것은 육체적인 성관계를 포함하지만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두 사람이 자신들의 꿈과 소망, 두려움, 물질적 소유, 생각, 감정, 기쁨, 어려움, 성공과 실패를 같이 공유하는 것이다.¹¹⁾ 결혼이란, 떠나고 결합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남’과 ‘결합’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지 못한 부부들은 철저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한층 어려워지는 것이다. ‘떠나지’ 않으면 부부가 필요로 하는 ‘결합’은 불가능하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데 필요한 결합이 요원해진다. ‘결합’이란 누군가를 열심히 쫓아가 붙든다는 개념이다.¹²⁾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부부가 ‘결합’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부모에게서 분리되지 못하거나 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게 될 경우 부부는 갈등을 느끼게 되고 결혼생활에 위기를 느낀다. 톰슨(Thompson)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는 부조화와 적대감, 깨어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갈등이 생기며, 이 지점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대적하는 적대감을 통해 소외감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적대감이 근원적인 태도로서 사람들의 역사를 지배해 왔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나타나는 갈등과 분규, 분노와 증오, 정복과 억압이 이러한 행위를 묘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³⁾

성경적 의미의 부부는 상호의존 하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내들은 남편의 지도에 따르고, 남편들은 아내를 이끌기 위하여 피차 복종(엡5:22)하여 상대방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인내로 기다려주며, 늘 격려하여 완전하도록 돕는 배필이다. 그러나 서로의 유익보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부부갈등이 발생하고 결혼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할 때 문제는 발생한다. 위기의 상황에서 파생되는 정서적 고갈로 인해 우리의 가슴에는 동정심을 빼앗아가는 것 외에도 우리를 죄에 빠지기 쉽게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가정과 결혼을 생각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떠한 구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아가서 2장 3-16절에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보호자라고 말한다. 남편은 아내의 공급자요(4절), 부양자(5절), 보호자(6절), 안내자, 지도자(10-15절)이고, 아내는 남편의 후원자이다.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라는 말씀을 통해 부부는 상호의 존재적 관계임을 보여 준다.¹⁴⁾ 성경적 의미의 부부는 상호의존 하면서 그들의 기능적 권위

9) 박정배(2011). 크리스천 부부의 갈등과 이혼 의도에서 공감과 정서표현이 부부들 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신학박사논문.

10) 이종숙(2011). 기혼 기독교 여성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신앙성숙도의 매개효과 검증. 충신대학교 목회상담전공 신학박사논문.

11) 게리콜린스(2008).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두란노, p 598-599.

12) 알렉스 캔드릭. 스티븐 캔드릭(2009). 『사랑의 도전』, 살림, P196-197.

13) 박정배(2011). 크리스천 부부의 갈등과 이혼 의도에서 공감과 정서표현이 부부들 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충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신학박사논문.

14) 전대식(2005). 기독교 부부의 갈등 및 대처행동과 해결방안 연구,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논문.

에 피차 복종해야 함을 뜻한다.

스트라우스(Straus, 1979)는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부부갈등은 개인의 영적 문제에 뿌리박고 있음을 확신한다. 대부분의 갈등의 주요원인은 관련된 사람의 영적 혼란이다.”라고 하여 부부갈등에서 있어 신앙의 문제가 주는 영향이 지대함을 지적했다. 결국 결혼은 불안정한 두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의미의 진정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부가 갈등이 있다는 것은 서로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나의 일부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기 때문이다.

3. 부부갈등에 관한 일반적 이해

부부란 사회적으로 승인된 성관계를 독점하며 상호 정조의 의무를 지닌다. 부부란 일상생활에 대한 상호 협조 및 부양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또한 부부란 일상을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의 인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가장 가까운 친밀성의 대상이지만 반면 갈등이 있을 때는 가장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대상이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콜맨(Coleman)은 부부갈등은 부부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말하며, 가족 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욕구가 상대방과 상충된다고 생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면서, 부부의 상반된 욕구, 목표, 기대의 불일치라고 정의 내렸다.¹⁵⁾ 한편 스트라우스(Straus)는 “갈등이란 인간의 삶에서 불가피한 것이며, 갈등이 국가 또는 가족과 같은 사회 집단들이 파멸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였고, 또한 갈등이 억제되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어렵고 적대감이 쌓이면 집단 결속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스트라우스의 주장은 부부 갈등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총체적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나아가 갈등을 통해 건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 차원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차이점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부부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어있다. 반대로 논쟁의 수렁에 빠지는 부부는 상반되거나 악순환적인 경험과 함께 갈등이 순환하는 특징을 명확하게 보인다.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이런 갈등에서는 과도한 부정적 정서와 익숙함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감정은 분노, 심리적 외상, 연약함, 불안, 두려움, 위축, 공격성등을 포함한다.¹⁷⁾

잘못된 가치관으로 시작된 부부관계가 고도로 문명화된 세상 속에서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만한 부부 관계를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혼이 손쉬운 탈출구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이 실패했을 때 남편들과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비싼 대가를 치룬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혼 이후의 문제들은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보다 훨씬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어떤 변호사는 그가 대하는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혼 후에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만큼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건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더라면 하고 후회한다고 말한다. 힘든 결혼 생활을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보통은 포기하는 것만큼 고통스럽지는 않다.

결혼생활에서 남자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은 성적인 만족, 같이 즐길 동반자 관계, 매력적인 배우자, 가정적인 내조, 칭찬 수이며, 여자들은 애정, 대화, 정직과 열린마음, 재정적인 지원, 가족에 대한 헌신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내는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원한다. 반대로 남편이

15) 박정배(2011). 크리스천 부부의 갈등과 이혼 의도에서 공감과 정서표현이 부부들 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신학박사논문.

16) 박정배(2011). 크리스천 부부의 갈등과 이혼 의도에서 공감과 정서표현이 부부들 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신학박사 논문.

17) Mark A. Y arhouse, James N. Sells공저 전용섭.한숙자.변영인. 김영희 옮김(2010). 『기독교 가족 치료』, CLC. p 420-421

원하는 것은 성적 만족감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내에게서 성적 친밀감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 남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성적 만족감을 누리려고 싶다면 아내를 친밀하게 대해야 한다.

4. 영화 '파이어프루프'에 나타난 부부 갈등

4-1. 영화의 개요와 의미

영화 <파이어프루프>(fireproof)는 '방화벽', 혹은 '불에 타지 않는 견고한'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어떤 위험에도 견딜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파이어프루프>(fireproof)는 미국 '셔우드픽처스'(Sherwood Pictures)에서 제작한 장편 영화다. 셔우드픽처스는 미국의 '셔우드침례교회'(Sherwood Baptist Church)가 교회사역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영화사로 기독교 가치관의 전파를 목적으로 희망차고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 왔다. 2003년<플라이휠>(Flywheel)을 시작으로 2006년도 <믿음의 승부>(Facing The Giants)와 2011년<커레이져스-용기와 구원>(Courageous)등 극장용 장편 드라마 4편을 개봉한 바 있다.

<파이어프루프>는 기독교 영화가 지닌 놀라운 힘을 가지적으로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 영화는 부부의 갈등과 이혼위기에 처한 수 많은 부부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어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파이어프루프>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성공하며 기독교 영화계의 아카데미로 여겨지는 '에피파니상'(무비가이드 선정)을 수상하였고 2008년 미국 최고의 기독교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에 나타난 구체적인 부부 생활 개선 방법이 담긴 책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알렉스 켄드릭, 스티븐 켄드릭지음)은 2008년 9월 출간되어 4개월 만에 200만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현재 300만부를 돌파하기도 했다.¹⁸⁾

<파이어프루프>는 이혼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소방 대장 케일럽(커크 카메론)이 아버지의 권유로 아내 캐서린(에린 베세아)의 관계 회복을 위한 '40일간의 도전'을 시작하는 이야기이다. 이 위대한 도전은 주인공의 마음과 결혼 생활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다. 특히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 된 후,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은 부부들이 함께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 실제로 4,000쌍 이상의 부부를 영화처럼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¹⁹⁾

이것은 이혼위기에 있는 부부에게 치료적 수단이며 의사소통의 주된 통로로 영화를 사용할 때 거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화는 실제보다 더 실제와 같은 세계를 체험하게 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서 메시지 전달능력이 탁월하다. 더구나 영화는 단순히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관객이 지닌 가치관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한 흡입력을 발휘한다. <파이어프루프> 보여주는 부부갈등의 해결법에 대한 상담심리적 이론은 존 가트맨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트맨(Gottman)은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에서 의견일치의 빈도가 높고, 부부갈등을 겪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가트맨은 부부관계에 정서적 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장기 연구를 통해 상대에 대한 긍정적 감정 강화와 부정적 감정의 최소화를 통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는 가트맨 연구소(Gottman Instituts)에서 부부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결혼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연구를 했으며 '무엇이 결혼을 실패하게 하는가' 보다는 '무엇이 결혼을 성공하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행복한 부부를 연구하였다. 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행복하고 안정된 부부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의 부정적인

18) 뉴욕타임스 1위, ECPA (미국복음주의출판협의회) 1위, 아마존닷컴 종합베스트 3위에 오른 이 책은 뉴욕타임스 40주 연속 베스트셀러 기록하며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19) 스티븐 켄드릭 홈페이지 참조. www.fireproofthemovie.com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²⁰⁾

사람은 누구나 크고 작은 갈등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갈등이 부부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부부갈등은 부부의 역할을 수행할 때만 발생하거나 생활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관계하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준다. 그러나 변화는 바로 갈등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므로 갈등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창조적 변화를 향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혼위기의 갈등상황에 처해있는 부부를 영화 <파이어프루프>와 실천지침서 <사랑의 도전>는 부부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효과를 가져 온 가트맨(Gottman)의 건강한 부부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기보다는 부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고 변화를 통하여 좀 더 의미 있는 관계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4-2.영화 속 갈등 분석

아내 캐서린과 남편 켈럽은 결혼한지 7년이 지난 부부이다. 켈럽은 자기만의 뚜렷한 주관을 가진 아내를 원했기에 밝고 쾌활하며 독립심과 자기주장이 강한 캐서린에게 마음을 빼앗겨 결혼을 했다. 아내 캐서린 홀트는 병원의 홍보를 책임지고 있고 남편 켈럽은 알바니 소방서 제1소방대 대장이다. 켈럽은 단독 행동을 하면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화재 현장에서 자기 파트너와 꼭 붙어 있어야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결코 파트너를 떠나서는 안된다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평생 파트너인 아내와 이혼의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동안 성경이 제시한 서로에게 부부로서의 한 몸 됨의 원리와 서로간의 수용의 원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랑의 원리를 떠나 서로의 역할에 대한 위기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표1> 갈등상황을 보여주는 장면 및 대사

캐서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시간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나를 위해 뭔가 해 준 적이 있나요? 켈럽. 우리는 이제 대화도 거의 안 해요. (부엌에는 돌로 깎 마루, 대리석 조리대, 우윳빛 유리 상들리에가 있지만 서로에게 할 말은 아무것도 없었다) 켈럽:“벌써 아침식사 했어?” 켈럽이 물었다. 캐서린: 네. (켈럽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서 흔든 후 와인 바에 놓는다) 켈럽: 뭘 먹었는데? 캐서린:마지막 남은 베이글 빵과 요구르트 한 병 먹었어요. 켈럽: 집안 꼴좋군. (그는 그녀를 질책하려 한다. 그때 그녀는 2리터 정도 남은 우유를 다시 냉장고에 넣고 있었다. 바로 조금 전에 그가 꺼내 놓은 것이다.) 켈럽: 내가 먹을 건데. 캐서린: 먹을 준비가 다 되면 다시 꺼내요.
--

20) 존 가트맨 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www.gottman.com.

켈럽: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

캐서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물건을 꺼내면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잖아요. 내가 당신을 쫓아다니며 치울 때까지 대부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나한테 할 일이 그것밖에 없는 줄 아나 봐요.

켈럽: 장 보기는 어떻게 된거야? 식료품 사 놓을 생각은 하고 있는거요?

캐서린: 당신 일정대로 라면 나보다 당신이 장 보러 갈 시간이 더 많잖아요.

켈럽: 난 당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나한테 혼수 들 필요 없잖아. 적어도 내가 아침에 먹을 것은 남겨 놓을 수 있잖아.

캐서린: 당신이 언제 집에서 밥을 먹을지 언제 나갈지 난 전혀 몰라요. 나한테 말해 주지 않잖아요.

켈럽: 캐서린, 뭐가 문제야? 오늘 아침에 저 문으로 들어와서 불쾌한거야?

캐서린: 아니요. 당신은 집에 앉아 인터넷으로 쓸데없는 거나 찾고 보트 살 궁리나 하며 빈둥거리는 동안 나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는데 장까지 보라고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켈럽: 일을 하기로 결정한 건 당신이었잖아. 아무도 당신이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소.

캐서린: 켈럽, 우리에게는 내가 버는 수입이 필요해요. 집에 수리할 곳이 하나둘이 아닌데 당신은 많은 돈을 저축했어요.

켈럽: 어디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거야?

캐서린: 뒷문은 페인트를 칠해야 하고, 마당은 조경을 다듬어야 해요. 벽장엔 선반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했잖아요.

켈럽: 캐서린, 그런 것들은 취향이잖아.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캐서린: 이건 정말 쓸데없는 대화예요. 이런 말싸움할 시간 없어요.

(캐서린은 집 안을 정리하고 양초 하나에 불을 붙여 분위기를 내고 냉랭하고 숨 막히는 감옥 같은 공기를 바꾸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켜 놓은 초가 꺼져 있는 것을 보았다.)

캐서린: 당신 뭐하는거예요?

켈럽: 내가 먹을 피자는 한 조각도 안 남겨 놓았군 그래.

캐서린: 켈럽, 그 촛불, 방금 전에 켜다고요. 향이 좋아서요.

켈럽: 난 별로요. 내가 먹을 저녁은 하나도 남겨 놓지 않았어?

캐서린: “마이클과 함께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켈럽: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그 두 사람 다 먹어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해?

캐서린: 그건 켈럽, 당신이 저녁을 먹을 건지 연락만 해 주면 뭐라도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켈럽: 왜 당신은 모든 일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캐서린: 내가 모든 걸 어렵게 만든다고요? 내가 볼 때는 이 집에서 힘든 일은 내가 다 떠안고 당신은 자기 일이나 하면서 빈둥거리는 것 같은데요.

켈럽: 뭐라고? 난 이 집 용자금을 갚기 위해 밖에서 일하잖소. 우리 두 사람의 자동차 할부금도 내가 갚고.

캐서린: 맞아요.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은 그게 다죠. 우리 집에 날아오는 공과금은 모두 내 월급으로 다 내잖아요.

켈럽: 그건 당신이 동의했던 거잖아.(그는 마치 찌르기도 할 듯이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그건 공평한 거지. 당신은 이 집 좋아하지 않아? 당신 차 좋아하지 않아?

캐서린: 켈럽, 이 집을 돌보는 게 누구죠? 나예요. 온갖 세탁물은 누가 빨래하죠? 나예요. 누가 모든 식료품을 사오죠? 나예요. 주말마다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짐을 내가 다 짊

어지고 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있다면 모두 당신 자신을 위한 일이죠.

켈럽: 그만해! 당신한테 진절머리가 나! 당신은 무례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야!

캐서린: 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켈럽: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켈럽은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었다) 당신은 끊임 없는 잔소리로 날 괴롭혀서 말려 죽일 작정이야. 정말 진절머리가 나! 나는 존중받아야 해. 나를 봐! 당신이 나를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그럼, 이 결혼의 의미가 뭐야?

캐서린: 나가고 싶어요.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켈럽: 당신이 나가고 싶다면 나도 좋아!

가트맨(Gottman)에 따르면 대화의 방식이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가 나타나는 경우 이혼위험성을 96%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흔히 많은 부부들의 대화가 비난과 방어를 통해 원수가 되는 대화를 하게 되는데 켈럽과 캐서린 이들 부부 또한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등 의 대화로 이혼의 위기에 있는 것이다. 불평이 행동에 대한 의견인 반면에 비난은 상대의 인격과 성격에 대한 부정적 평가이다. 따라서 비난은 상대의 인격적, 성격적 문제를 지적한다. 예를 들면, “당신이 청소한다고 말했잖아. 그런데 탁자에 부스러기가 그대로 있어. 당신은 하겠다고 한 일을 결코 하지 않아.”(‘항상’과 ‘결코’ 같은 말들은 상대가 성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²¹⁾ 그리고 “왜 당신은 모든 일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야 하는 거야?” “당신은 무례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여자야!” 와 같은 말들이다.

또한 가트맨은 비난은 상대에게 영구적인 행동적, 인격적 문제가 있다는 표현인 반면 경멸은 상대가 자신의 도덕적, 인격, 지성보다 하위에 있다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멸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언어적인 표정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경멸의 저변에는 상대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이 있다. 방어(자기변호, 핑계)는 자신의 결백이나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자신을 비난으로부터 지키려는 의도에서 나온다. 때로는 “당신은 잘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데?”라는 식으로 역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는 소리로 희생자 같은 행동을 취한다.

방어가 발생하는 문제는 자신에게는 전혀 본질적인 원인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면에 있다. 담쌓기(도피)는 상대방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무시한다. 담쌓기의 예는 다음과 같다.“그래서 어찌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그래.” “난 당신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을 뿐인데 나한테 훈수 둘 필요 없잖아.” 등의 영화 속 대화는 모멸감과 무시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대체로 담쌓기는 비난, 경멸, 방어가 선행한 후 마지막에 나타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녀는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이 다를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을 공경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며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한다는 뜻이다. 성경은 부모와 그들의 권위를 “공경하라”고 말한다. 특별히 결혼 생활에서도 공경심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의 애정을 유지하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서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서로를 비판과 비난을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감정과 필요한 것을 이해하고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는 성경의 명령을 준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롬12:10)하기를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파이어 프루프>에서 나타난 부부의 격한 갈등의 상황에서 존중보다는 상대방에게 서로 비난과 경멸을 보내지만 아울러 상대의 다른 감정의 요구 곧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때 변화의 표적이 되는 상대방은 흔히 적개심과 거절당하는 기분을 느끼게 마련이다. 적당한 제안은 유용하고 유익할 수 있지만,

21) 존 가트맨. 낸 실버(2014). 『가트맨의 부부 감정 치유』, 을유문화사. p80.

변화에 대한 집요한 요구는 잔소리와 노골적인 공격으로 비화될 수 있다. 방치된 갈등은 결국 서로에 대한 공격과 복수로 발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조율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혼생활이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반대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하여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하거나, 한 가족이 해체되는 이혼까지 갈 수도 있다.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위기 속에서 이혼이 증가하고 나아가 부부 이혼이 크나큰 가정 문제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서 부부간의 인격적 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현실이다.

5. '40일의 사랑의 기적' 및 가트맨의 갈등해결

영화 <파이어프루프>에서는 불에 타지 않을 만큼 어떤 위협에도 견딜 수 있는 부부관계를 보호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또한 파트너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방법으로 비난과 방어 그리고 경멸을 하고 끊임없는 잔소리와 결여된 의사소통으로 인한 일방적 담쌓기의 상처로 인해 부부가 서로에게 독자적이면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방화벽을 허물고 자신만의 담을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남자 주인공 켈럽은 3년간 지금의 아내에게 구애를 하며 시간을 보낸 끝에 결혼 7년이 지난 지금과 앞으로의 결혼생활을 진정으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40일 동안 사랑의 기적'을 따라 했으면 한다는 아버지의 부탁을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아들아, 이 40일간의 여정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네가 40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만 투자한다면 그 결과는 너의 인생과 결혼 생활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²²⁾

가트맨에 따르면 부부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으로 치닫는 원인은 부부 사이의 대화의 내용이 아니라 대화의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부부싸움의 외형적 특징인 내용, 억양, 음성, 눈빛, 자세, 표정 등의 연구결과 부부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든지 갈등을 초래하는 부부들은 서로 간에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식의 비난, 상대에 대한 경멸 및 멸시, 방어 및 자기변호, 그리고 담쌓기 등을 담은 목소리와 대화 방식으로 소통한다고 한다.²³⁾

가트맨은 '원만한 부부생활의 비결'을 연구한 결과, 부부간에 의견차이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상대방에 배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가 갈등을 완화시키는 열쇠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제시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표2> 가트맨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²⁴⁾

원칙 1.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라	원칙 3. 상대방에게서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원칙 2.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원칙 4.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원칙 5. 해결 가능한 문제는 두 사람이 해결하라	원칙 6. 둘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상황을 극복하라
원칙 7. 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	

가트맨의 7가지 원칙을 영화 속에서 주인공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하는 '40일의 사랑의 기적'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2) 영화에 나오는 켈럽의 아버지의 조언으로 부부갈등이 창조적 반전을 만드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다.

23) 최성애, 조벽의 감정코칭 매뉴얼. p 65.

24) 존 가트맨 & 낸 실버(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문학사상. P79.

5-1. 제1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2원칙-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
‘40일의 사랑의 기적’을 실행하는 첫 날 캘럽이 제시 받은 첫 번째 해결과제는 아래와 같다.

“하루 동안 최대한 인내심을 발휘하여,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자꾸만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하면,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선택 하십시오. 후회할 말을 내뱉느니 입을 다무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은 가트맨이 제시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2원칙인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러라’에 해당한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은 두 사람의 애정에 꽃을 피우고, 그 꽃을 언제까지나 지지 않게 하는 가장 귀중한 요소이다.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은 당신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하기가 불가능하다. 성경 또한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약 1:19)고 한 것은 부부갈등을 줄이는 성경적 커뮤니케이션 방법임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한다.

가트맨(Gottman)은 부부문제에 없는 부부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을 할 때 이해나 지지를 나타내면서 확신을 갖고 배우자가 제기한 문제에 반응을 하였다. 특히 부부갈등의 상당수는 완화의 대상이지 완치의 대상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부부간 우호적 관계를 해칠 수 있는 4가지의 태도 즉,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에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배려와 감사의 마음은 이로부터 부부관계가 깨지는 것을 막아 준다.

5-2. 제2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3원칙-상대방에게서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

충분한 동기 부여 없이 사랑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다. 친절을 베푸는 법을 배울 때에야 비로소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오늘은 배우자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어제의 도전에 추가하여, 예상치 못한 친절 행위를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을 베푸십시오.”

캘럽은 천으로 된 식탁 매트를 깔고 설탕 그릇과 스푼을 내놓았다. 검은 빛이 짙게 감도는 커피를 그녀가 아끼는 빨간색 머그잔에 붓고 매트 중앙에 놓고 손잡이를 잡기 쉽게 오른쪽으로 약간 돌려놓았다. 이 일로 그 자신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될지도 몰랐다. 그것은 하나의 변화인 것이다.

“저, 당신 커피 준비해 났는데.”

사랑하면 친절한 사람이 된다. 성경은 친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장)에서 친절한 사랑을 묘사하셨다.

부부는 상대방의 주목, 애정, 기분, 관심을 끌기 위한 시도, 즉 ‘비드(bids)’라고 이름 붙인 것일 때에 발산한다. 가트맨(Gottman)은 부부가 배우자의 관심, 흥미, 애정 그리고 감정적인 지지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하는데 이를 ‘비드(bids)’라 이름 붙였다.²⁵⁾ 이 비드로 마주 대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비드로부터 도망가는 부부가 있다. 이들 부부의 차이는 ‘애정 은행 예금’ 이라고 부르고 있는 애정의 예금 양의 차이에 달려 있다.

5-3. 제3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6원칙- 둘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친 상황을 극복하라

25) 박관서(2006). Gottman의 부부치료 원리를 활용한 부부갈등 극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 문대학원. 석사논문.

영화가 ‘40일의 사랑의 기적’ 제 3일에 제한하는 방법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부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들이는 대상은,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소중한 것이다. 오늘 하루 동안에는 부정적인 언급을 삼갈 뿐 아니라, ‘오늘 당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져 줄 만한 작은 선물을 배우자에게 사 주도록 하십시오.”

남편 켈럽은 아내를 위해 꽃을 주문한다. 자신의 만족이나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우러나오는 소통의 의지야말로 갈등을 대하는 자세임에 분명하다. 상대방을 감정을 해치는 언행을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가트맨의 방법은 좋은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도 긍정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존중의 자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 2:3)라는 성경 말씀과도 부합하는 일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의 이기심은 못마땅해 하면서도 자신의 이기심은 정당화 한다. 우리는 ‘자기’를 애지중지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막다른 길에 놓인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아니라, 부부의 일상 대화에 그 문제가 얼굴을 내밀지 않게 하는 일이다. 행복한 부부는 이루는 것이, 결혼생활의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고 있다. 행복한 부부는 결혼생활을 통해 서로의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한다.

5-4. 제4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4원칙-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영화 속에서 아내 캐서린은 켈럽이 직장에서 일하는 자신에게 왜 전화를 했는지 의아했다. 평소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캐서린: “뭘데요?”

켈럽: “으음, 알다시피…….” 그가 말했다. “그냥 당신에게 뭐 필요한건 없는지 알고 싶어서.”

캐서린: “내가 필요한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했다고요?”

켈럽: “그래요.”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있어야만 배우자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아내가 화가 났을지라도 남편에게 거친 말을 하지 않고, 불평불만도 적게 하며, 비난하는 말도 하지 않게 되고 타협점을 찾고 서로의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서로를 존경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생활하는 부부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는 남편의 일방적이며 독단적인 의사결정 행위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고 그것을 존중하는 의사소통방식은 함께 하는 삶에 대한 존중이자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을 표현한다.

5-5. 제23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7원칙-함께 공유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

“기생충. 기생충을 조심하라. 기생충이란 당신이나 배우자에게 딱 달라붙어 결혼 생활의 숨통을 끊어 놓는다. 대개는 도박이나 약물, 음란물 등에 대한 중독 형태를 띤다. 처음에는 쾌락을 가져다준다고 약속하지만, 병균처럼 퍼져 당신의 사고와 시간과 돈을 갉아먹는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충절과 사랑을 앗아 간다. 기생충이 생기면 결혼의 회생 가능성은 희박하다. 진정으로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당신 마음을 물들인 중독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당신부터 무너지고 말 것이다.”

부부는 둘이서 만들어 나가는 내적인 삶이라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서로의 역할이나 인생의 목표가 가족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이해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부부마다 특유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다른 커다란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 작은 문화는 제각기 결혼 생활이 만들어 낸 그 가정의 습관(매주 토요일에는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식, 회합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반드시 부부의 인생관이 꼭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서로 마음만 잘 맞으면 된다. 그러나 마음이 맞는 일을 함께 하는 가운데서 부부의 인생관은 비슷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부부 가운데 한사람이 자신의 쾌락에 집중함으로써 공유하는 문화를 갖지 못할 경우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대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알코올이나 마약, 도박, 게임 등에 중독이 된 경우 부부가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의 의미를 놓치기 쉽다.

5-6. 제43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7가지 원칙’ 중 1원칙-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려라.

켈럽: 켈럽이 속삭이듯 말했다. “좀 어때?” “잠시 앉을 수 있겠어?”

케서린: “네.”

켈럽: “열이 있네.” 케서린은 켈럽이 사온 진한 크림 닭고기 수프와 차가운 음료수, 냅킨, 그리고 감기약을 보았다.

케서린: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켈럽: “내가 배운 바에 의하면 특히 화재가 났을 때는 절대로 파트너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해서.”

케서린: “켈럽, 당신한테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어요?”

켈럽: “아버지가 내게 물어보셨어. 우리 결혼 생활을 회복할 마음이 내게 있는지. 그런 다음 내게 뭔가를 주셨는데 …… 당신에게 읽으라고 줄 수도 있어요.”

케서린: “이거요. 그럼 오늘은 몇 번째 날인가요?”

켈럽: “43일째.”

케서린: “43일요. 하지만 여기에는 40일밖에 없잖아요.”

켈럽: “내가 거기까지만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소?” 켈럽은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는 “케서린,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소. 지난 7년 동안 말과 행동으로 당신을 무시하고 힘들게 했소. 당신을 사랑했어야 했는데 난 다른 엉뚱한 것들을 사랑했소.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은 이전에 없었던 당신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었소. 난 그분께 용서해 달라고 구했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당신도 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소. 케서린, 당신 없이 남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소.”

(북받쳐 터질 듯한 가슴으로 케서린은 남편의 고백을 정신없이 듣고 있었다. 그의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이유는 없었다)

케서린: “켈럽, 당신이 좋은 남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 당신은 좋은 남자예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 당신을 사랑해요.”

케서린: “너무 늦은 건 아닌지 ……?”

(케서린이 손을 들어 손가락에 낀 결혼반지를 보여 주었다)

케서린: “나와 함께 늙어 가자고 부탁해도 될까요?”

가트맨은 ‘애정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라고 주문한다. 많은 무관심한 부부들 중 한쪽 또는 서로가 배우자가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와는 반대로 정서적 지능으로 결합되어 있는 부부는 서로의 개인생활에 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다. 가트맨은 이러한 부부를 ‘상세한 애정지도를 갖고 있는 부부’라고 부른다. ‘애정 지도(Love map)’

란 배우자의 인생과 관련된 정보를 머릿속에 그려놓은 지도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그려지게 된다. 배우자의 인생목적, 고민이나 걱정, 그리고 꿈과 희망 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부부는 둘 사이의 애정의 깊어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된다. 26)

손에 손을 꼭 맞잡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남편과 아내로 캐서린은 자신의 결혼 생활이 소금과 후추처럼 맞지는 않지만 서로가 조화롭게 필요를 채워가듯 부부들 사이에 건강한 결혼을 위해 노력하고 결혼의 성장과 존속을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긍정적 정서가 발달함에 따라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감탄했다. 클라인벨은 건강한 결혼을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요구되며 잠재적으로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관계’ 라고 했다. 결혼은 두 성인이 남편과 아내로서 각자의 생활을 친밀하고 복잡한 연합 속에 병합시키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복되고 귀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잠 18:22, 히 13:4).27)

사랑은 영향력이 있다.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 부여의 원동력이다. 가트맨은 행복을 가져오는 대화 방식으로 ‘경청, 칭찬과 감정 인정, 질문, 피드백, 자기이야기’의 5가지 요소가 중요하며 이 순서대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적어도 5배, 즉 5:1 황금율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28) 이를 테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했다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다섯 번은 해야 부부관계가 좋게 유지되는데, 부부사이가 좋은 경우 이 비율이 20:1이나 된다고 한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상호 작용 빈도수가 매우 중요하다. 작은 일에도 서로 긍정적 감정을 충분히 쌓아서 고마움과 존중, 배려, 호감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부부사이의 행복한 비결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러므로 서로 파괴적인 결혼생활로부터 구원받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으며 잘 통제하고 조절하여 조화롭고 성숙한 부부생활과 신앙생활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이 담긴 <사랑의 도전>(The Love Dare)을 통해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긍정적이고 행복한 부부결혼생활을 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표3> 사랑의 기적29)

01 사랑은 오래 참는다	21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한다
02 사랑은 친절하다	22 사랑은 신실하다
03 사랑은 이타적이다	23 사랑은 언제나 보호한다
04 사랑은 사려깊다	24 사랑과 정욕
05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25 사랑은 용서한다
06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26 사랑은 책임진다
07 사랑은 최선을 믿는다	27 사랑은 격려한다
08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28 사랑은 희생한다
09 사랑은 좋은 인상을 준다	29 사랑은 동기
10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30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
11 사랑은 소중히 여긴다	31 사랑과 결혼
12 사랑은 저 준다	32 사랑은 성적 필요를 채워준다
13 사랑은 정정당당하게 싸운다	33 사랑은 서로를 완성해 준다
14 사랑은 즐거워한다	34 사랑은 경건함을 기뻐한다
15 사랑은 공정한다	35 사랑에는 조언이 필요하다
16 사랑은 중보한다	36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7 사랑은 친밀감을 키운다	37 사랑은 합심하여 기도한다

26) 박관서(2006). Gottman의 부부치료 원리를 활용한 부부갈등 극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 문대학원. 석사논문.

27) 게리 콜린스(1984). 『효과적인 상담』, 두란노. P116.

28) 최성애(2010). 『최성애 박사의 행복 수업』, 해냄. p6.

29) 알렉스 켄드릭. 스티븐 켄드릭(2009). 『사랑의 도전』, 살림. P8-9.

18 사랑은 이해하려고 애쓴다	38 사랑은 꿈을 이룬다
19 사랑은 불가능하다	39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다
20 사랑은 예수그리스도시다	40 사랑은 언약이다

7. 결론 및 제언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의 상처와 두려움은 물론 서로가 떠맡아야 할 짐과 불완전함을 나눈다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은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들은 결혼이 당분간 지속될 편리한 협정이라고 생각하고 쌍방이나 어느 일방에 의하여 임의로 종결지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결혼은 일생동안 지속되는 제도이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인간 제도이며 가정과 교회는 그것을 기초로 해야 비로소 세워진다. 결혼 생활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진다. 결혼 관계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한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배경과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상호작용과정 곧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부는 끊임없이 갈등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갈등으로 인한 고통과 이혼의 위기극복을 위한 부부생활의 회복에 관한 영화가 많지도 않거니와 또한 아직은 기독교 영화에 대한 치료적인 학술적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부치료에 기독교 영화를 활용하는 연구는 시기상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도 누군가는 첫 걸음을 떼는 사람이 있어야 뒤에 오는 사람이 길을 가기가 수월한 법이다. 영화가 세상을 보는 거울이라면 영화치료는 영혼에 놓는 주사라고 스투어트 피쇼프라는 미디어 심리학자가 말한 바 있듯이 21세기 현대사회는 미디어로 둘러싸인 사회이며, 21세기에 영화치료는 새로운 미디어 치료로서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거 기독교 신앙을 고양시키고 표현하기 위해 미술과 음악이 사용되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미지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종합예술로서 평가받고 있는 영화가 가장 강한 호소력을 갖는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영화의 치료적 수단으로 영화 <파이어프루프>는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가 40일간의 여정을 통해 사랑에 대해 배우고 결혼 생활의 갈등을 극복하고 회복하기 시작하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위기에 처한 기독교 가정의 현실과 대안 모두를 인식하게 만든다.

영화는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은지를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준다. 사랑은 영향력 있고 사랑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원동력이듯,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지닌다. 사랑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바로 인내와 운이다. 이 두 속성에서 다른 모든 사랑의 특징이 비롯된다. 사랑하면 오래 참는 사람이 된다. 오래 참기로 결단한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또한 인내는 실수한 상대방에게 잘 못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인내는 관계가 어려움을 봉착할 때에도 압박을 견디다 못해 단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영화에서 40일 간의 여정 중 첫날 하루 동안 인내하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비난하고픈 것을 인내하여 가트맨의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길렀기 때문이다.

친절은 행동하는 사랑이다. 친절은 긍정적인 상황을 최대화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운유하게 유익을 주며 자발적으로 행하게 한다. 솔선수범은 진정한 친절 행위이다. 영화 40일의 두 번째 여정은 가트맨이 제안하 듯 상대방에게서 달아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도록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영화 <파이어프루프>의 40일 간의 여정과 가트맨(Gottman)의 행복한 부부생활의 비결은 흥미롭게도 많은 부분에서 영화치료에 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즉 영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

안을 인지함으로써 현실세계 속에서 관객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발전된 연구를 위해서는 영화 <파이어프루프>를 이혼 위기에 처한 부부들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산출해내는 일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관계를 개선하는데 매우 적절하게 쓰일 수 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행해질 때 성경적 관점을 보다 진작시킬 수 있어서 기독교상담 영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기독교영화치료’가 기독교세계관에 입각하여 성경적 의미를 생성시킬 수 있는 까닭이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선교를 갈 생각이었다.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 계기는 그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행 16:9-10)

이것은 우리에게 언어 중심이 아닌 시각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뜻을 전해주는 사건을 보여준다. 기독교영화가 복음을 소통시키기 위해 단순히 보여주고 듣게 하고 또 말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알게 도와주는 매체체로서의 새로운 의미를 인식할 때가 온 것이다. 즉 영화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넘어 현대인들에게는 영화치료라는 매체치료를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와 제안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³⁰⁾

30) 강진구(2012). 한국기독교심리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기독교영화치유의 이해와 전망』.

참고문헌

국내서적

- 김병준(2006). 행복할 수 없다면 절대 이혼하지 마라. 토담미디어.
김영애(2012). 사티어 빙산의사소통.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김용태(2006). 통합의 관점에서 본 기독교 상담학. 학지사.
김혜영(2012). 사랑이 증오로 바뀔 때 부부교과서. 글샘.
김재원(2000).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 태일출판사.
강진구, 박한철(2002). 감성세대의 영화읽기. 예영커뮤니케이션.
김준기(2009). 영화로 만나는 치유의 심리학. 시그마 북스.
권석만(2012). 현대 심리치료와 상담 이론. 학지사.
권석만(2011). 인간의 긍정적 성품. 학지사.
권영자(1992). 평등한 부부. 한국여성개발원.
노안영(2005).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박성덕(2011). 우리,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 지식채널.
심영섭(2011). 영화치료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심수명(2006). 한국적 이마고 부부치료. 도서출판 다세움.
선안남(2011). 스크린에서 마음을 읽다. 시공사.
이선형, 정미예(2010). 연극. 영화로 떠나는 가족치료. Σ 시그마프레스.
임성선(2008). 심리학, 부부를 만나다. 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임성선(2009). 결혼의 심리학 이혼의 심리학. 도서출판 아름다운사람들.
여성한국사회연구회(1992).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사회문화연구소 출판부.
양정자(1995). 부부싸움, 하면 이겨야 한다. 다섯 수레.
안귀옥(1999). 여자가 이혼을 생각할 때. 세계의 여성들.
이수경(2012).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라이온 북스.
최성애(2010). 최성애 박사의 행복 수업. 해냄.
최성애(2005). 부부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해냄.
최성수(2005). 영화관에서 만나는 하나님. 도서출판 이화.
최성수(2007). 영화속 기독교. 도서출판 글누리.
플러스 명상센터(2007). 긍정적 메시지. 오리진.
홍미경(2013). 아내는 가끔 다른 인생을 꿈꾼다. 도서출판 무한.
하정완(2004). 영화의 바다로. 예찬사.

번역서적

- 니시타니 야스토(2000).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는 결혼스타일. 이소라 옮김. 동서고금.
다이안 바로니, 베티 켈리(1994).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최해정 옮김. 도서출판 제삼기획.
로버트 존스톤(2003). 영화와 영성. 전의우 옮김. IVP.
리즈 호가드(2006). 영국 BBC 다큐멘터리 행복. 위즈덤하우스.
비르기트볼트(2006). 시네마테라피. 심영섭, 김준형, 김은하 옮김. 유문화사.

빌 하이벨즈, 린 하이벨즈(2001).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 백준호 옮김. 도서출판 바울.

스테파니 쿤츠(2009). 진화하는 결혼. 김승욱 옮김. 작가정신.

우르셀부허(2010). 부부가 함께하는 12가지이유, 도현정 옮김. 도서출판 지향.

윌리엄 글라썬(1999). 결혼의 기술. 우애령 옮김. 하늘재.

윌리엄 글라썬(1998). 행복의 심리. 김인자, 우애령 옮김. 한국심리상담연구소.

알렉스 켄드릭, 스티븐 켄드릭(2009). 사랑의 도전. 이지혜 옮김. 살림출판사.

에릭 윌슨(2009). 알렉스 켄드릭, 스티븐 켄드릭 원작. 파이어프루프, 살림출판사.

알 잔센(2007). 하나님의 걸작품 결혼. 안효선 옮김. 에스라서원.

케리 콜린스(2008). 뉴 크리스천 카운슬링. 한국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옮김. 두란노.

케리 콜린스(1984). 교회 지도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 정동섭 옮김. 두란노.

케리 콜린스(1998). 폴 투르니에의 기독교 심리학. 정동섭 옮김. IVP.

존 가트맨, 줄리 슈워츠 가트맨(2008). 『우리아이를 위한 부부사랑의 기술』. 최성애, 조벽 공역. 해냄.

존 가트맨, 줄리 슈워츠 가트맨, & 조앤 디클레어(2007). 부부를 위한 사랑의 기술. 정준희 옮김. 해냄.

존 가트맨(2014). 결혼 클리닉 정동섭 외 창지사.

존 가트맨 & 낸 실버(2002). 행복한 부부 이혼하는 부부. 임주현 옮김. 문학사상.

존 가트맨 & 낸 실버(2014). 가트맨의 부부 감정치유. 최성애, 조벽 옮김. 을유 문학사.

지그 지글러(2011). 연애하는 부부. 조동춘 옮김. 도서출판 큰나무.

크리스토프 앙드레(2011). 화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모두 다 괜찮아. 배영란 옮김. 다른세상.

클라임 마쉬, 가이 오르티즈(2007). 영화관에서 만나는 기독교영성. 도서출판 살림.

폴 투르니DP(2000).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정동섭 옮김. IVP.

Andrew Christensen, Neil S. Jacobson(2013). 부부의 성격차이 해결법. 유미숙, 전성희 옮김. ∑ 시그마프레스.

Christakis, Nicholas A · Fowler, James H.(2009), Connected, 이충호 역(2010), 『행복은 전염된다』, 과주: 김영사.

Steve R. Baumgardner, Marie K. Crothers 안신호 외 공역(2010), 긍정심리학 ∑ 시그마프레스.

Susan M. Johnson(2006). 정서중심적 부부치료. 부부관계의 회복. 박성덕역. 학지사.

Seligman, Martin E.P.(2004).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김인자 역(2011)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안양: 도서출판 물푸레.

George E. Vaillant(2013). 행복의 지도. 김진영, 고영건 옮김. 학지사.

J. F 맥리언(1996). 혼인의 기원. 김정숙 옮김. 나남출판.

Ludwig Schindler. Kurt Hahlweg. Dirk Revenstorf(2009). 부부, 가깝고도 먼 동반자. 이남옥. 문용갑 옮김. 학지사.

Lynn L. Long, Mark E. Youg(2009). 부부상담과 치료 이정현 옮김 CENGAGE Learning.

Mark A. Y arhouse, James N. Sells공저 전용섭.한숙자.변영인. 김영희 옮김(2010). 『기독교 가족치료』, CLC.

Robert D. Isett, 로버트D(2012). 아이셋 이문영 옮김. 내인생이 행복해지는 긍정의 심리학, 소셜메이트.

Wedding, Danny · Boyd, Mary Ann(2010), Movies and Mental Illness, 3rd edition, 광호완 · 장문선 · 구분훈 · 배대석 역(2012), 『영화와 심리학』, 서울: 학지사.

학위논문

- 박정배(2011). 크리스천 부부의 갈등과 이혼 의도에서 공감과 정서표현이 부부들 간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신학박사논문.
- 박관서(2006). Gottman의 부부치료 원리를 활용한 부부갈등 극복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석사논문.
- 이종숙(2011). 기혼 기독교여성의 부부갈등으로 인한 분노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신앙성숙도의 매개 효과 검증. 총신대학교 목회상담전공 신학박사논문.
- 전대식(2005). 기독교부부의 갈등 및 대처행동과 해결방안 연구.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석사논문.
- 한정희(2011). 가트맨 부부치료 프로그램의 한국 부부집단상담 적용 및 효과검증. 복음신학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논문.

학회 논문

- 강진구(2003). 신앙과 학문, 기독교 영화학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 관점에서 살펴본 영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
- 강진구(2012). 기독교학문학회 춘계학술대회, 교회제작영화연구 - 서우드침례교회와 꿈이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 강진구(2012). 한국기독교상담학회 춘계학술대회, 기독교영화치유의 이해와 전망.